

특집

서울대학교 K-MOOC
오프라인 특강



1. 특강 개요

- 특 강 명 : 서울대학교 K-MOOC 오프라인 특강
- 특강주제 : 서울대학교 K-MOOC 교수자 강연 및 질의응답
- 일 시 : 2015. 12. 22.(화) 18:00~20:00
- 장 소 : 교수학습개발센터(61동 320호)
- 대 상 : 온라인 수강생 및 서울대학교 구성원
- 참석 자 : 81명

● ● ●
엄 정 윤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이러닝콘텐츠개발부

2. 행사 취지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열린 고등교육 체제를 통한 대학 교육 혁신에 앞장서고자,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K-MOOC진흥본부에서 추진 중인 「2015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사업」에 참여하였다. 한국형 무크(K-MOOC)는 “열린 고등교육 체제를 통한 대학교육 혁신”을 비전으로 모든 강의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대학 간 교육 역량 격차에 따른 제약을 완화하여 대학 교육의 실질적인 기회 균형을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대학교육에 대한 평생학습 기반을 마련하여 국가 인적자원개발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서울대학교 K-MOOC 오프라인 특강은 본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된 행사이다. 온라인상에서도 다양한 질의응답 및 활동 등이 가능하지만, 교수자와의 직접적 대면을 통한 교감 형성 및 심층적 질의응답에 아쉬움을 느끼는 학습자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고, 참석자 분석을 통한 강좌별 실질 수강생 분포 및 실수와 허수 구분 지표 등을 분석하고자 기획되었다.

온라인 수강생의 학습 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오프라인 특강 참여 비율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좋은 취지의

특강을 가급적 많은 수강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포스터 및 초대장을 제작하여, 이를 K-MOOC 사이트 및 서울대학교 CTL 페이스북에 홍보하였으며, 개별 메일 및 문자도 발송하여 인식도를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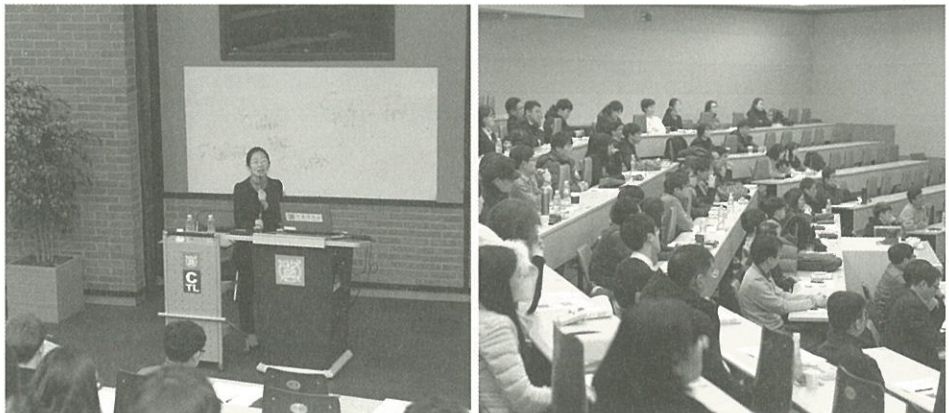
3. 프로그램

□ 세부 일정

시간			구 분	발표자
시작	종료	소요		
18:00	18:10	10'	개회사	김선영 교수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18:10	18:40	30'	우주와 생명	김희준 교수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18:40	19:10	30'	아담 스미스(Adam Smith)가 열어놓은 경제학의 신세계	이준구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19:10	20:00	50'	질의응답 및 폐식	

3.1 개회사

K-MOOC 오프라인 특강은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이러닝콘텐츠개발부 김선영 연구교수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오후 6시 시작이라는 시간적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강생들이 이른 발걸음을 해주었다.



3.2 강연

개회사에 이어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김희준 교수가 ‘우주와 생명’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10대들의 수강 비율이 높은 강좌였던 만큼, 교복 차림 학생들의 분주한 메모가 돋보였던 시간이었다. 이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가 ‘아담 스미스(Adam Smith)가 열어놓은 경제학의 신세계’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강연 전반에 걸쳐 개론적 내용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적합한 강연이었다.



3.3 질의응답

두 분의 강연이 끝난 뒤, 동시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질의하는 수강생들의 특성은 강좌가 가진 특성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10대들의 수강 비율이 높았던 김희준 교수에게는 교복차림 학생들의 질의가 쏟아졌고, 그 문의 역시 내용적인 측면이 많았다. 반면, 20대 이상의 수강 비율이 높았던 이준구 교수에게는 사회인들이 상당수 질문하였고, 대체적으로 현 세태나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질의 포인트가 맞추어져 있었다.

흥미로운 부분은 질의한 수강생의 비(非)수강 중인 강좌에 대한 질의가 쇄도했던 점이다. 본 강연을 통해 비(非)수강 중인 강좌에 대한 관심도 따라 높아진 것으로 보였다.

수강생 중 한 명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직장인으로, 평상시 관심 있던 화학 강좌(우주와 생명)를 수강 중이었다. 김희준 교수의 우주와 생명 강좌는 일반적인 화학 강좌의 학습 흐름과 달리, 우주와 생명의 역사적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여기에 교과 간 융합적 특성까지 갖추고 있어, 실제로 김희준 교수의 제자가 아닌 이상은 접하기 어려운 매력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수강생은 평상시 화학 관련 서적을 많이 접했던 터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한 본 강좌의 커리큘럼이 매우 흥미로웠고, 이와 같이 흥미로운 커리큘럼을 서울대학교 학생이 아닌 본인이 수강할 수 있었던 점에 감사함을 표하였다. 본인의 질의 내용이 끝난 후, 남긴 말은 K-MOOC의 취지를 잘 보여준다. “저는 직장인이기 때문에 낮 시간에 진행되는 수업은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K-MOOC 강좌는 언제든지 틈틈이 수업을 들을 수 있어, 화학에 대한 지적 욕구를 채우는 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학습 환경이었습니다. 또한 본 강좌를 통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화학을 접근할 수 있어 관련 분야까지 시야가 넓어졌고, 넓어진 시야만큼 여러 영역에 새로운 관심이 생겼습니다. K-MOOC 강좌 서비스에 무한한 감사를 표합니다.” 두 강좌의 수강인원이 도합 10,000명을 넘는 가운데, K-MOOC의 긍정적 파급효과는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